

Contents

February 2008 축산물등급판정소 2008년 2월호(총권138호)

- 02 _ 축산단신
- 04 _ 기획특집
2007년도 축산물등급판정 결과
- 06 _ 전문가심층분석
농가별(계군별) 동외란 출현율 조사와 활용
- 09 _ 축산식육상식
식육에 관한 재미있는 상식
- 10 _ 한우 등급판정 우수농가 탐방
시례한우농장-이상철 농가
- 11 _ 돼지 등급판정 우수농가 탐방
밀양농장-이용문 농가
- 12 _ 소·돼지 가격전망
- 13 _ 소·돼지 산지 및 도매시장 가격동향
- 14 _ 등급판정 통계자료
1월중 축산물등급판정 결과
- 19 _ 등급판정 소식



표지사진 '눈 속의 개나리'
전북지역본부 과장 정중학 작

비육돈 두당 5만원 이상 손실

양돈협회가 올해 돼지 비육돈 두당 수익에 대해 5만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으로 분석했다. 협회는 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2만8천~4만1천원의 흑자경영을 전망한데 대해 성명서를 내고, 자체 조사결과 올해 두당 5만1천원 가량의 적자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향후 예정돼 있는 사료가격 인상에 따라 그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협회는 우리나라 양돈농가 평균 MSY 14두, 폐사율 42%, 사료가격 430원/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두당 생산비가 25만6천166원, 조수입 20만4천235원으로 두당 5만1천931원의 적자가 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협회는 조수입에 대해 올해 예상 자육가격을 kg당 3천원으로 가정했을 때 비육돈 판매수입이 20만4천원(자육율 68%, 100kg 기준), 부산물 수입 182원, 기타 53원을 거둘 것으로 봤다. 또한 생산비는 폐사율 42%를 반영해 경영비의 경우 24만4천410원으로 자가노력비와 고정자본이자 등은 2004~2006년 농산물품질관리원 통계치의 평균값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해양배출 중단시기 법률 명시 '철회'

오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을 법적으로 명시하겠다는 해양당국의 방침이 철회됐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당초 개정안에 포함, 양돈업계의 우려를 자아냈던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시기 명시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대해 해양배출 중단시기의 법적 명시를 반대해온 대한양돈협회는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우리에도 불구하고, 양돈업계도 2012년 중단을 예상으로 해양배출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그 시기를 법적으로 못박아 놓았다면 그 시기 까지도 일부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물량이 남아있을 경우 접근방법의 한계는 물론 자칫 해당농가를 범법자로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또 양돈업계의 의견을 수렴, 당초 이달 22일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토록 했던 가축분뇨 성분검사를 오는 8월 22일까지 6개월 연장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처리기준만 제시했던 기존과는 달리 새로운 시행규칙에서는 25개 성분검사 의무화 및 검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해수부의 방침이 그대로 반영돼 양돈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원대책 실효 얻으려면 후속대책마련이 선행돼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008년 2월 4일 축산농가들의 사료구매자금으로 1조원(연리 3%, 상환기간 1년)을 지원하기로 발표하자 축산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이번 지원책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일부 대책의 수정 및 후속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조원의 자금을 개별농가가 지원받려면 우선적으로 담보가 필요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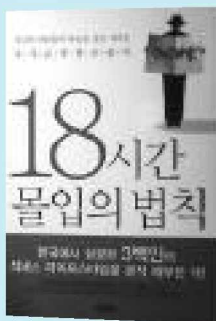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은 이미 농협 등의 금융권과 사료업체 등에게 담보를 잡혀 여력이 없다. 또 축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돼지 한 마리를 출하해도 5만 000원의 적자(양돈협회 조사 기준)를 보는 상황에서 3%의 이자는 적잖은 부담으로 가중될 수 있다. 자칫 구매자금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정선현 양돈협회 전문부는 땅은 물론 생돈까지 담보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원한우협회 회장은 특별지원자금이라는 명목에 맞게 무이자 지원이 필요하고 한우의 경우 사육기간이 2년이 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1년 일시상환이 아닌 분할상환 등의 방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또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실질적인 장기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료업체는 농림부가 올해이 자금을 지난해 527억원보다 증가한 839억원(금리 4%)을 책정했지만 원료구매금액이 약 2조 5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추가 지원 및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오을 한나라당의 원실의 관계자는 "담보력이 부족한 농가들을 위한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다만 금리와 상환기간 연장, 업체를 위한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 확대 등은 다소 어렵고 해외자원 개발 등의 중장기 대책을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사료업체 원료 확보' 발등에 불'

원료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료업체들의 원료 재고량

이 급감하면서 설 연휴와 그 이후 사료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료업체에 따르면 운송기간이 20일 남짓 소요되고 국내 통관시 1~2일이 필요한 점 등의 변수를 감안해 20일분의 원료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옥수수 수급이 쉽지 않으면서 국내 재고량은 1주일분에도 못 미친다. A사료업체의 한 임원은 "설 연휴를 맞아 가 수요물량이 늘어나면서 2, 3일에도 공장을 가동하는 등 생산량이 늘어나 원료가 많이 필요하지만 재고량은 1주일분도 안 돼 불안한 상황"이라며 "설 연휴가 끝나는 9일과 10일에도 공장을 가동하지만 물량 부족으로 일부 공장은 생산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재고량이 급감하면서 충분한 원료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공장 가동 정지, 농장 사료공급 차질 등의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A업체 임원은 "현재로서는 통상 하루나 이틀 정도의 통관기간을 줄여 수급을 그나마 원활히 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2월 초 들어오는 배와 연휴기간에 입항하는 배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의 협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한필 사료협회 상무는 "지난 2008년 1월 31일 인천의 식물검역소 실무자를 만나 원료의 통관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했고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화산책 - 18시간 몰입의 법칙



- 저자 : 이지성
- 출판사 : 맑은소리

무조건 하루 18시간은 일에 쏟아부어라

인류사에 비밀이 하나 있다. 그것은 '18시간 몰입의 법칙'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이룬다는 것이다. 눈뜨자마자 일을 생각하라. 미릿속의 모든 생각을 언제나 일에 집중시켜라. 무조건 하루 18시간은 일에 쏟아부어라. 꿈속에서조차 일을 하기를 소망하라. 같은 원칙을 갖고 있는 '18시간 몰입의 법칙'을 만들어 데레사, 주운래, 빙게이트 같은 세계적인 인물부터 한국의 10대 기업 CEO, 김지·문화·예술 등 한국 사회 각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성공자 300여 명으로부터 추출한 정보들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성공제 1조건은 '돈'이 아니라 '꿈'이라고 단언하면서 '보기의 기술', '쓰기의 기술', '질문의 기술' 같은 구체적인 꿈을 이루기 위한 기술을 알려준다.